

대가야교육원 2026년 하반기 선발고사 중1 국어

제 1 교시

국어 영역

○ 문항 수는 25개이며, 문항별 배점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점은 모두 4점입니다.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티틸과 미틸은 화려한 집들을 보며 부러워한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 할머니가 나타나 자신의 아픈 손녀가 파랑새를 꼭 갖고 싶어 한다며 티틸과 미틸에게 파랑새를 찾아 달라고 한다. 티틸과 미틸은 특별한 모험을 하면서 여러 차례 파랑새를 발견하지만 파랑새는 이내 죽어 버리거나 색이 변하고 만다.

(가) 다음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어요. 티틸과 미틸은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어요. “이 잠꾸러기들, 어서 일어나렴!”
엄마가 방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아이들을 깨웠어요. 티틸은 벌떡 일어나 엄마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티틸? 우리는 어젯밤에도 인사를 했잖아.”

(나) “참, 손녀가 항상 새를 갖고 싶어 했죠? 티틸, 그 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새를 주지 않겠니?”
엄마가 티틸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파랑새가 아니어도 괜찮다면 가져가세요!”
티틸은 이렇게 말하며 새장을 가리켰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새장 안에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있었거든요.
“파랑새예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할머니, 이 파랑새를 손녀한테 갖다 주세요. 틀림없이 병이 나을 거예요.”
티틸은 기쁜 마음으로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다) 티틸은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어요.
“파랑새가 예쁘니?”
“응, 정말 예뻐.”
“내가 먹이 주는 법을 알려 줄게.”

() 학교 () 학년 이름 ()

티틸이 이렇게 말하며 파랑새에 손을 뻗을 때였어요. 파랑새가 소녀의 손에서 빠져나가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어요.

“어머,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어!”

소녀가 울상을 지었어요. 티틸이 소녀를 달래며 약속했어요.

“울지 마. 내가 다른 파랑새를 찾아 줄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거든.”

1.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복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 ② 선행을 베풀면 행복이 찾아온다.
- ③ 소중한 것을 지킬 때 행복해진다.
- ④ 실수로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 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2. 이 글에서 ‘파랑새’의 상징적 의미를 바르게 파악한 학생은?

- ① 지호: 손을 뻗자 날아가 버린 파랑새는 ‘자유’를 상징하는구나.
- ② 수빈: 아픈 소녀에게 건넨 선물인 파랑새는 ‘건강’을 상징하는구나.
- ③ 재인: 찾아 헤매던 대상이면서 집에 있었던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구나.
- ④ 규해: 할머니와 손녀, 엄마와 티틸의 모습을 보면 파랑새는 ‘가족의 사랑’을 상징하는구나.
- ⑤ 종환: 티틸이 찾아 헤매던 대상이고, 소녀가 갖고 싶어 한 대상인 파랑새는 ‘운명’을 상징하는구나.

(3-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가야

내 이름은 민들레야

지난겨울 너의 모자 끝에

달려 있던 털방울 같지

작은 입술 뽀뽀하듯 내밀고

후후후 입김 부는 아가야

봄바람 같은 너의 숨결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낙하산 되어 날아가지

멋지게 착륙하여 내년에 다시

널 만나러 올게

그때는 너의 숨결도 좀 더

힘차고 따뜻하게 자라 있을 테지

내년 봄에는 후후

두 번만 불어도

나는 날아갈 테지

올해는 ㉡후후후

내년엔 후후

(나)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3. (가)시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1연: 민들레가 아가에게 자신을 소개함.
- ② 2연~3연: 아가가 민들레를 ‘후후후’ 하고 불면 민들레 흠뻑이 되어 날아감.
- ③ 4~5연: 민들레가 내년에 좀 더 자라 있을 아가를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함.
- ④ 6연: 민들레가 내년엔 아가에게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⑤ 7연: 아가의 성장을 숨결이 ‘후후후’에서 ‘후후’로 세지는 모습으로 표현함.

4. ㉠에 나타난 표현의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아가야’라고 대상을 부르면서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 ② 독자들이 민들레를 아가와 같은 입장과 처지에서 바라보게 한다.
- ③ 사람이 아닌 민들레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 재미를 준다.
- ④ ‘내 이름은 민들레’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처럼 민들레가 말을 건네고 있다.
- ⑤ 독자들이 아가를 향한 민들레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한다.

5. 시어 ㉡‘후후후’의 특징과 효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후’를 반복하여 운율을 만들어낸다.
- ② 아가가 민들레 흠뻑을 부는 모습이나 소리를 강조한다.
- ③ 아가가 민들레를 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④ 민들레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애상적인 분위기로 표현한다.
- ⑤ 민들레 흠뻑을 부는 순수한 아가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한다.

6. (나)시에서 말하는 이의 삶의 자세로 알맞은 것은?

- ① 행복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
- ②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 ③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
- ④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 ⑤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

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개’는 시적 화자가 도달하고 싶은 희망과 평화의 세계를 뜻한다.
- ② 같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3연의 소재들은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준다.
- ④ 곳곳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 ⑤ 3연을 중심으로 1연과 5연, 2연과 4연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8. (나)시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 : 말하는 이는 숲과 마을로 향하고 있다.
- ② 2연: 쉬지 않고 나아가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 ③ 3연: 1, 5연과 2, 4연이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기준이 된다.
- ④ 4연: 말줄임표를 통해 말하는 이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 ⑤ 5연: 첫 연을 반복하여 말하는 이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9-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커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따라가기 힘들어요.”

진행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길어지면서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무인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한 계층은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기자입니다.

(나) 기자: 한 패스트푸드점, ㉢어르신들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어색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비대면 주문을 하는 기계가 있지만 그대로 지나치고, 주문을 받을 직원도, 물어볼 사람도 없어 한참을 서 있다가 포기합니다.



㉢나는 불편하죠.
힘들어요. 하다가 안 돼서
'에이, 나가야겠다' 하고
나온 거예요.

(다)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키오스크가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글씨는 작고 속도는 빨라서, 고령층에게는 어렵고 점자를 써야 하거나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정보 격차’ 정도를 조사해 보니,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접근 정도는 일반 국민 대비 91.7%로 나타났지만, 활용 역량 수준은 60.2%에 불과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는 열에 아홉이 가지고 있지만 이용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마) 기자: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데, 이를 활용하지 못해 우대 금리 등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9. (가)~(마)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가): 무인 시스템으로 인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커지고 있음.
- ② (나):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를 해결함.
- ③ (다): 고령층과 장애인들은 키오스크의 사용이 어려움.
- ④ (라):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떨어짐.
- ⑤ (마):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로 정보 취약 계층은 실질적인 혜택에서 소외됨.

10. ㉠~㉣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격차’라는 단어를 고려할 때, 디지털 정보 이용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야.
- ② ㉡: 앞 문장을 고려할 때, 정보 취약 계층은 무인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③ ㉢: ‘어색한 순간’의 뜻을 고려할 때, 어르신들이 주문할 때 자연스럽게 못하고 당황한다는 뜻이야.
- ④ ㉣: 나도 키오스크 주문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의 복잡한 주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이해돼.
- ⑤ ㉤: ‘디지털 접근 정도’와 ‘활용 역량’의 수치를 고려할 때, 정보 취약 계층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의미야.

11.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맞게 추론한 것은?

<보기>

어르신이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면담을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

- ① 어르신들 사이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 ② 어르신들의 소외 문제에 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 ③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시하기 위해서
- ④ 디지털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기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 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활용을 못하면 소외되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라)의 ㉠에서 기자가 실태 조사 결과를 제시한 까닭을 알맞게 추론한 것은?

- ① 디지털 정보 격차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 ② 디지털 정보 격차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 ③ 디지털 정보 격차의 원인을 알리기 위해서
- ④ 디지털 정보 격차의 대상들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 ⑤ 디지털 정보 격차의 문제에 대한 기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3-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참, 떡장구를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섉뚝섉뚝했다.

...<중략>...

소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중략>...

수숫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년이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나)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다) 소녀가 분홍 스웨터 앞자락을 내려다본다. 거기에 검붉은 진흙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 ...<중략>...

“내, 생각해 냈다. 그 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얹힌 일이 있지? 그 때, 네 등에서 옅은 물이다.”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갈림길에서 소녀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대추를 땀다. 널 제사 지내려고 ……”

대추 한 줌을 내준다. 소년은 주춤한다.

(라)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었다. / 돌아오는 길에는 열이를 달이 지무는 그들만 골라 다녔다. ...<중략>...

소년이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았다.

“저, 서당골 윤 초시 댁에 가신다. 제삿상에라도 놓으시라고 ……”

“그럼 큰 놈으로 하나 가져가지. 저 얼룩 수탉으로 ……”

13. 위와 같은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위치와 인물과 사건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② 언어의 압축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③ 글에 제시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며 읽는다.
- ④ 글에 담긴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며 읽는다.
- ⑤ 글쓴이의 가치관을 자기 생각과 비교하며 읽는다.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을 행복한 결말로 표현했다.
- ② 인물들의 감정이 긴 문장을 통해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 ③ 아름다운 농촌을 배경으로 소설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가 주로 행동이나 상징적 소재를 통해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⑤ 이 글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소나기’는 소년과 소녀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한다.

15. (나)~(라)에 쓰인 소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수탉 : 소년과 소녀를 이어 주는 매개체이다.
- ② 대추 : 소녀를 위하는 소년의 마음을 표현한다.
- ③ 스웨터 :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지는 역할을 한다.
- ④ 조약돌 : 소녀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상징한다.
- ⑤ 갈림길 : 소년과 소녀가 다시 만날 것임을 암시한다.

16. 전체 줄거리를 고려할 때, 소나기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소녀가 아프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소녀와 소년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 ③ 소녀와 소년이 송아지 주인 농부에게 혼이 나는 계기가 된다.
- ④ 소설의 제목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소재로서 기능한다.
- ⑤ 소년과 소녀의 짧은 만남을 암시한다.

17.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상호야, 지우개 좀 빌려 줄래?

- ① ‘어근 +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지+-우개’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 ③ ‘-개’는 ‘간단한 도구’라는 뜻을 더해 준다.
- ④ ‘-개’는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 ⑤ ‘지우개’와 ‘개살구’에서 ‘개’가 가진 뜻은 동일하다.

18. 다음 중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체언은 형태가 변한다.
- ② 우리말에는 열 개의 품사가 있다.
- ③ 관형사는 주로 용언을 꾸미는 구실을 한다.
- ④ 사람,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단어를 부사라 한다.
- ⑤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독립언이라 한다.

19.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나는 오늘도 달리고 또 달린다.
 ② 온 세상에 울리는 맑고 고운 소리, 고령 피아노
 ③ 해준이가 사과 하나를 금방 먹고 배를 또 먹는다.
 ④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간다.
 ⑤ 그녀가 문을 쿵쿵 두드리고 도망가는 게 보인다.

20. 다음 중 수사가 들어 있지 않은 문장은?

- ① 우리 둘이서 힘을 합치자.
 ② 내 나이 서른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③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④ 영미는 방학동안 소설책을 다섯 권이나 읽었다.
 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 중에 첫째가 영준이다.

2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그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 나는 한 눈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 이 사랑은 운명이라고 믿는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분명하다.
 ㉤ 그런데 저 모자 쓴 이는 누구지?

- ① ㉠의 ‘그’는 조사와 바로 결합하였으므로 체언인 대명사이다.
 ② ㉡의 ‘그’는 뒤에 나오는 체언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③ ㉢의 ‘이’는 뒤에 나오는 체언 ‘사랑’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④ ㉣의 ‘이’는 뒤에 나오는 용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⑤ ㉤의 ‘이’는 조사와 바로 결합하였으므로 체언이다.

(22-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다양한 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처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운전자 역할을 대신하는 자율 주행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편리한 점만 있을까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선부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 ㉢먼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자동화하여 많은 일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에 따라 현재 존재하는 많은 직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인공지능에게 고객의 정보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즉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나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기업은 자사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의료용 로봇이 오진을 하거나 자율 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

는 걸까요? 만일 인공지능 기술이 테러 등에 악용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악용한 사람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 인공지능 기술은 분명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술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선불리 우리의 삶 속에 들여오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22. (나)~(바)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나):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 줌.
- ② (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음.
- ③ (라):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음.
- ④ (마):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⑤ (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

23. ㉠~㉣에서 글을 추론하며 읽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 글쓴이가 '경계'라는 단어를 쓴 까닭이 무엇일까?
- ② ㉡: '하지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문장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 ③ ㉢: 이 문장은 화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
- ④ ㉣: 글쓴이가 인공지능 기술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제시한 까닭이 무엇일까?
- ⑤ ㉤: 글쓴이의 경험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생각은 합리적이며 적절한가?

(24-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최고 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다는 치타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니다. 워낙 빠르기에 200~300미터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한계다.

그렇다면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은?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파충류이지 포유류가 아니다. 답은 나무늘보다.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꿈쩍도 않으며, 18시간을 잔다. 나무늘보는 영어로 'sloth'인데 이 단어는 본래 '나태', '게으름'을 뜻한다.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 보자. 사람은 분당 100여미터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미터를 9초대에 주파한다.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29미터에 이른다.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미터를 움직일 수 있다. 1분에 15미터를 가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 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이다.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고작 분당 4미터로, 1초에 7센티미터도 가지 못한다. 이쯤되면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의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다.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호주에는 코알라가 있다. 코알라(koala)는 호주 원주민의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뜻의 '굴라(gula)'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다.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일까?

나무늘보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다.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것이다.

코알라도 마찬가지다. 야행성이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주된 먹이는 유칼립투스잎이다. 나무늘보처럼 영양가도 별로 없는 유칼립투스잎만 먹고 하루 20시간을 자는 생활을 한다. 유칼립투스잎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

어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다. 그러니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응한 것이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나무 위)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다.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 경영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바로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이다.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 오션(red ocean)이라면 블루 오션은 먼 대양(大洋)이다. 레드 오션에서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의 이진투구를 벌이는 반면, 블루 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레드 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블루 오션은 현존하지 않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이다. 느려 터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의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에 다른 종들과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 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다.

24. 이 글을 읽고 올바른 내용을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영웅 : 포유류 중 가장 느린 동물은 단연 코알라지.
- ② 영탁 : 코알라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이란단다.
- ③ 찬원 : 레드 오션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산업이나 시장을 의미한다고 해.
- ④ 호중 :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먹이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 ⑤ 동원 :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서식지와 먹이 등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같아.

25. <보기>는 이 글이 실린 책의 제목과 차례이다. 이를 참고하여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제목 :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
- 차례 : 과학에서 캐내는 경제의 금맥
 - 활짝 열린 세렝게티, 뽕뽕 달힌 갈라파고스·개방경제의 힘
 - 식물의 키는 무엇이 결정할까·경제 성장과 행복
 - 그림보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블루 오션 전략

- ① 나무늘보와 코알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자 한다.
- ②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존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다.
- ③ ‘블루 오션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 ④ ‘블루 오션 전략’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다.
- ⑤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생존법을 알려 동물 보호와 경제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수고했습니다.